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가속도'

지역균형발전 선도

교통혼잡 완화 등

도민 편의 증진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교통혼잡 완화 등 도민들의 도로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속 추진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속 추진 지시, '고흥~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우선 협력사업 선정 등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크게 기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정성 증대를 위한 시설물 반영 등으로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실시로 사업의 장기표류 등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전복연구원과 함께 논리 개발을 통해 확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지난 8월 2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사업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의 신속 추진이 기대되며,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면 도로용량 증대로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시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총사업비가 2,299억 원에서 3,372억 원으로 증가돼 국가 예산 1,073억 원(46.7%) 추가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고속도로망(10×10축)의 동서 3축(새만금~포항) 중 전주~장수~무주 구간(75km)을 전주~무주 직결 노선(42km)으로 연결해 우회 거리(33km)를 단축하고, 미개설된 무주~대구 구



대형 비빔밥 비빔기 퍼포먼스... 전주비빔밥축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1963명의 전주 시민들이 지난 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주페스타 2024' 전주비빔밥축제에 참석해 대형 비빔밥 비빔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전주비빔밥축제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5면>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구간 확장 타당성재조사 통과 고흥~세종 고속도로 건설, 호남권 메가시티 협력과제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내년 개통... 4개 고속도로 연결

간을 건설함으로써 국가 간선망 동서 축을 확충, 영호남 간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무주 직결 노선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2026~2030)' 및 무주~성주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건의해 왔다.

지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 국토교통부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더불어 지난 7월 4일 7년 만에 개최된 3개 시도 '호남권 정책협의회(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식)'에서

초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고흥~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우선 협력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순천 원주선을 직접 연결해 완주~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남북 3축과 4축의 중북 노선인 호남고속도로 익산~논산 구간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지·정체 해소가 예상되고, 호남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및 수도권까지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3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8년에 착공해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은 2025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익산~장수 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 도로가 연계돼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련 지자체, 지역정치권, 전북연구원,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국가 예산 확보 등 도내 고속도로 건설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도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계획되고 설계·공사 중인 도내 고속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복장유물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

18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 학술·예술적 가치 높아

고창군이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일괄'이 10월 4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됐다고 밝혔다.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뛰어난 조각 양식을 지녔으며, 제작연대, 제작자, 제작배경, 불상을 모신 장소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어 18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았다.

불상은 58.5cm 정도의 크기로 작은 편이며, 책상다리를 한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오른쪽 팔뚝을 드러낸 변형된 편단우견으로 옷을 입었고, 무릎 폭과 상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또한 눈, 코, 입 등의 이목구비와 손, 옷 주름 등에서 상징(尙淨) 작품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예술적 가치 또한 높다.

복장유물은 '발원문'과 '황초복자'라는 보자기로 감싼 '후령통(候鈴筒)', 필사본과 목판본의 '다라니', 세 종류의 '법화경' 등이 확인됐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조각승 상정은 조선 후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진열 계보의 대표 조각승인 상정(尙淨) 스님 등 4명이 참여해 조성했고, 불상 조성에 참여한 시주자와 소임자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700여명이 기록돼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7월 '고창 문수사 대웅전'이 보물로 승격되었고 이번에는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일괄'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되어 고창군과 문수사의 경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발굴 및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 예고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일괄'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석 기자

전북지역 국감 주요 주제는 '새만금'

국토위, 14일 자치도 국감 후 새만금 현장 시찰

환노위도 같은 날 전주서 국감 후 새만금 시찰

22대 국회의 전북지역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전북지역 기관들의 국감 주요 주제는 '새만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7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새만금을 방문해 현장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특히 국토위의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의 전북 소외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날에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새만금으로 향한다. 이날 오전에 전북환경청 등 2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새만금에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다. /뉴시스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

10.11.FRI - 13.SUN 변산해수욕장

축하공연

대표프로그램

개막 공연 10.11

폐막 공연 10.13

축제정보 보러가기

레드 와인 페스타

붉은 노을 재즈 페스티벌

부안 붉은 노을 동요제

스카이 갤러리

주관 |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